

일 지역 주부의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권 수 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생활 단위로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족 속에서 성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곳이다. 가족 구성원인 인간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존재로서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면서 변화되는 내·외적 환경과 적응해야만 하는 개방체계로서(Park, 1988) 간호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가족구성원의 위치 및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에서 가정에서 가장 중심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주부이다. 즉 현대 주부는 2가지 상반된 기대와 규범 속에서 살고 있다. 참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부추기는 현대 산업사회의 기대와 한편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노동과 가사노동에 얽매어 두려는 가족제도 및 문화규범의 요구는 주부들에게 심리적 긴장을 초래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Kim과 Park, 1999).

특히 가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주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은 여러 가지 적응기제와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와 생활변화에 완충작용을 하는 반면 가족역동에 문제가 있거나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

는 이러한 적응능력과 필요한 하지 못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아진다 (Lee, 1987).

Lee(1992)에 의하면 가족기능이 양호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더욱 용이하게 받아들임으로 가족기능은 가족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중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도 강조되고 있다(Norbeck, Lindsey 와 Carrier, 1981, Thoits, 1982), 특히 사회적 지지는 삶의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중재할 뿐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안녕에 중요하며, 건강과 사회심리적 안녕과도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다(Suh, 1995).

이에 본 연구자는 주부들이 경험하는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여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봄으로써 주부들이 받는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구체적 목적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가족기능,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의한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

* 서라벌대학 간호과

스,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주부들의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기간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를 주 중심도시로 정하여 포항, 경주, 인근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조사원으로는 S 대학 간호과 학생들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여 각 가정의 주부들을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질문지에 응답하기를 동의하는 주부를 편의 추출하였다. 수집된 291명의 자료 중 자료기재가 미비한 28부를 제외한 263명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대상자들이 최근 2년 이내에 겪은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McCubbin, Patterson 과 Wilson(1979)의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을 Lee(1993)가 수정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자가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주부들이 지각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의 1~10번 문항은 The Family Stressors Index로서 가족들에게 계속적인 생활사건이나 변화에 대해 취약하게 하는 스트레스원을 주부가 지각한 것으로 측정된 것이다. 11~20번의 문항은 The Family Strains Index로서 부부, 부모 자녀간의 갈등, 재정적 곤란 및 아동들을 돌보며 겪는 갈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21~25번의 문항은 The Family Distress

Index는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어려움들로 인한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도구에서는 각 항목별로 점수가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해당 항목의 스트레스가 없을 경우의 0점부터 최고항목의 점수는 79점까지이다. 각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 합계를 낸 다음 10으로 나눈 값이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점수가 된다.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Lee(1993)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0.884$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0.718$ 이었다.

2) 가족기능

대상자들의 가족기능이란 가족결속력과 적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Olson, Port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간이화한 도구(FACES-III)를 Kong(1990)의 연구에 이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총 20문항 중 10문항은 가족적응력에 관한 문항으로서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규율 등에 관한 내용이고, 결속력에 관한 10문항은 정서적 유대감, 지지, 가족경계, 시간/친구, 흥미/오락 등에 관한 것이다.

가족기능 척도의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적응력 점수는 짝수 문항 점수의 합이고, 결속력 점수는 홀수 문항 점수의 합이다.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79$ 였다.

3) 사회적 지지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 ISEL)를 기반으로하여 Suh(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18문항의 4점 척도 도구로서 18점~72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Suh(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0.89$ 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가족 생활사

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가족기능,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의한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각각 t-test, ANOVA 검증을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대도시(울산광역시)의 거주자가 125명으로 47.5%로 가장 많았고, 농촌 거주자는 86명으로 32.7%였으며 중·소도시(포항, 경주)의 거주자는 52명으로 19.8%였다. 연령은 40~49세가 146명으로 55.5%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가 50명으로 19.0%를 차지하였고 30~39세가 48명으로 18.3%를 차지하였으며 20~29세가 19명으로 7.2%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43.4세였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141명으로 53.6%로 많았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119명으로 45.2%였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127명으로 48.3%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자는 74명으로 28.1%였으며 초등학교 졸업자는 35명으로 13.3%였고 대학교 이상은 25명으로 9.5%를 차지하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182명으로 69.2%였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는 80명으로 30.4%였고, 가족의 형태는 대가족이 242명으로 92.0%로 많았으며 핵가족은 21명으로 8.0%였다. 본 조사에서 핵가족 보다 대가족이 많은 것은 연구조사원들이 연구대상자를 편의추출한 결과로서 중앙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대가족 형태의 가족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의 수입은 100~200만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가 139명으로 52.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00~300만원사이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71명으로 27.0%였고 10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34명으로 12.9%였으며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가 17명으로 6.5%로 가장 낮았다.

2.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의 정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Wives

Variable	Category	N	%
Residential Area	Large	125	47.5
	Medium-Small	52	19.8
	Rural	86	32.7
Age	20-29yr	19	7.2
	30-39yr	48	18.3
	40-49yr	146	55.5
	50-59yr	50	19.0
Occupation	Yes	141	53.6
	No	119	45.2
	Missing	3	1.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5	13.3
	Middle School	74	28.1
	High School	127	48.3
	Above College	25	9.5
	Missing	2	0.8
Religion	Yes	182	69.2
	No	80	30.4
	Missing	1	0.4
Family Type	Nuclear	21	8.0
	Extended	242	92.0
Famiy Income (million·won)	100 Below	34	12.9
	100-200	139	52.9
	200-300	71	27.0
	Above 300	17	6.5
	Missing	2	0.8
Total		263	100

대상자의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25.8이었고 구체적으로 본 스트레스 점수는 Stressors(스트레스원) Index가 11.5로 가장 높았으며 Strains(긴장형 스트레스) Index는 11.3 이었고 Distress(안정성 위협) Index에서 구한 평균점수는 3.1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을 4점 척도로 측정해본 결과 평균은 47.2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수인 가족결속력(family cohesiveness)은 26.8, 가족적응력(family adaptability)은 21.4로 가족결속력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점수는 43.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평균점수가 25.8인데 비하여 Lee(1993)의 '장애 아동의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의 구조모형' 연구에서는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168.90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장애아동의 가족들은 정상 가족보다 장애아동으로 인하여 더 많은 스트

(Table 2) Mean Score and Range of the Family Life Events Stress,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ing

Variable	Mean \pm SD	Rrange
Stressors Index	11.5 \pm 8.19	0-41
Strains Index	11.3 \pm 9.19	0-42
Distress Index	3.1 \pm 5.76	0-26
(Total)Family Life Events Stress	25.8 \pm 17.07	0-93
Family Cohesiveness	26.8 \pm 5.40	15-75
Family Adaptability	21.4 \pm 3.76	12-36
(Total)Family Functioning	47.2 \pm 7.13	29-74
Social Support	43.4 \pm 7.38	23-70

레스 생활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Kim과 Park(1999)의 '일부 도시주부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신체증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총 236점 중 평균점수는 92.72 ± 10.41 로 나타났다. 건강문제, 가정문제, 경제적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나아가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간호사들은 주부가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조기에 파악하여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기능에 있어서는 Kong(1990)이 '청소년 정신질환자 가족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5점 척도에서 응답을 할 경우 중립적인 경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족기능 점수는 47.2(5점척도:58.9)로 나타났으며, 가족결속력은 26.8(5점척도:33.5)로서 가족적응력의 21.4(5점척도:2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Kong(1990)의 연구에서 청소년 정신질환자 가족의 대조군으로 사용한 정상인군의 가족결속력이 34.3(5점척도)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가족적응력이 21.4(5점척도:26.7)로 나타난 것은 Kong(1990)의 연구에서 가족적응력 점수가 정상인군이 24.4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인 주부들이 인지하는 가족적응력이 Kong(1990)의 연구 결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Kong(1990)의 연구에서 모두 적응력보다는 결속력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Kim(1988)이 '가족기능과 가족구성원 건강상태와의 관계'연구에서 W 초등학교의 가족구성원중 10세 이상이며 가족구성원 5명이하인 가족에게 18점에서 126점까지 측정될 수 있는 Feetham 기능조사서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점수는 52~104점수이며 평균점수

는 79.57이었으며,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가족구성원의 건강상태는 좋을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었다($r=1.1735$, $p<.1$). Chung(1990)의 '일부 지역 주민의 가족기능과 관련요인 분석연구'에서는 APGAR (A:Adaptation, P:Partnership, G: Growth, A:Affection, R:Resolve)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평균 가족 기능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7 ± 0.11 로 중등도의 가족기능장애를 보였으며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생활주기, 가족분위기, 가족원 건강문제 해결 자원이용이라고 제시하였다. 가족기능인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은 가족구성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결코 주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리라 본다. 따라서 가족내의 여러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가족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의 점수는 43.4 인데 반하여 Suh(1995)의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생활방식에 관한 구조모형'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51.6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지정도가 높고 사회적 지지체의 73.6%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대상자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으로서,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살펴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 중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다(Cobb,1976). 따라서 주부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주위의 지지모임이나 지지망의 조성 등이 필요하다.

3.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성

1)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가족기능과의 상관성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가족 기능과의 상관성은 <표 3-1>과 같다.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가족기능과는 $r = -.1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약한 역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족기능을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족결속력과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는 $r = -.2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가족적응력은 $r = -.01$ 으로 상관관계가 없었다.

Lee(1992)의 연구에서 가족의 결속력, 적응력 그리고 지적 의사 소통으로 가족기능을 측정한 결과 가족의 기능이 양호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용이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가족기능과는 서로 상호관련성이 있으나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1> Correlation between Family Life Events Stress and Family Functioning

Variable	Family Cohesiveness	Family Adaptability	(total) Family Functioning
Family Life Events Stress	-.23**	-.01	-.18**

** p<0.01

2)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성은 <표 3-2>와 같다. 전체적인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는 $r = -.2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Stressors Index와 사회적 지지와는 $r = -.10$ 으로 거의 상관성이 없었으며 Strains Index와 사회적 지지와는 $r = -.27$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stress Index와 사회적 지지는 $r = -.2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약한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h와 Han(199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대응은 생활사건이 주는 스트레스를 가볍게 하며,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생기면 대응이나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Suh(1987)도 임신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Chung(1990)

의 연구에서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수준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던 것은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의 스트레스 감소에 있어서 전문기관, 가족, 친구, 친척 등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또는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Park(1993)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사회적 지지는 역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Cassel, 1976, Dean과 Lin, 1977)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2> Correlation between Family Life Events Stress and Social Support

Variable	Stressor Index	Strains Index	Distress Index	(Total) Family Life Events Stress
Social Support	-.10	-.27**	-.20**	-.26**

** p<0.01

3)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

대상자들이 느끼는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는 <표 3-3>과 같다.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r = .4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 관계를 보였다. 가족결속력과 사회적 지지는 $r = .39$, 가족적응력과 사회적 지지도는 $r = .2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대상자들의 가족결속력, 가족적응력의 가족기능은 사회적 지지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Park(1988)이 정신박약아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지(가족강도, 가족적응, 부모지지) 정도와 가족기능정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r = 0.54$, $p = 0.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였다.

<Table 3-3> Correlation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Variable	Family Cohesiveness	Family Adaptability	(Total) Family Functioning
Social Support	.39 **	.29 **	.46**

** p<0.01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와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은 50-59세(F=2.94, p=0.034) 종교를 가진 자(t=2.54, p=0.012), 가족형태중 핵가족인 경우가(t=2.52, p=0.012) 대가족보다 더 많은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이 대가족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낸 점은 Kim과 Park(1992)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우리나라의 최근 가족제도는 구조적으로 보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가족내부의 실제의 생활, 도덕이나 문화, 규범, 가치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부들은 가족내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주부에게 미치는 내·외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감소 및 제거, 스

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올바른 적응을 함으로써 주부들의 건강을 향상시켜야 한다(Kim과 Park, 1992).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가족기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은 학력에서 대학이상이 가장 높은 점수로서 (F=3.15, p=0.026) 학력이 높은 주부의 가족일수록 가족기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ung(1990)이 APGAR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족기능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변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여자에서, 대졸이상자, 기혼자, 직업이 있는 자, 고소득자에서 가족기능도가 높았으며, Park(1998)은 정신박약아 가족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기능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집단보다 더 좋은 가족기능을 보였다.(F=4.12, p=0.008), 주부의 학력수준에 따라 가족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한 (F=7.48, p=0.000) Chung(1990)과 Park(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학력수준의 차이는 가족기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

<Table 4> Difference in Family Life Events Stress,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Wives

Variable	Category	Family Life Events Stress			Family Functioning			Social Support		
		Mean	SD	t/F	Mean	SD	t/F	Mean	SD	t/F
Residential Area	Large	24.09	16.33	F=1.10	48.46	6.34	F=0.74	47.89	8.37	F=1.50
	Medium-Small	25.89	16.46		47.00	7.26		45.34	9.93	
	Rural	27.72	18.43		48.19	8.13		46.86	8.70	
Age	20-29yr	22.17	12.96	F=2.94*	50.16	6.90	F=0.73	50.22	9.25	F=1.92
	30-39yr	23.16	16.09		48.34	7.75		47.68	8.27	
	40-49yr	24.76	15.86		47.95	6.58		47.17	9.14	
	50-59yr	31.92	21.25		47.34	8.24		44.73	7.93	
Occupation	Yes	26.14	16.13	t=0.48	48.31	6.60	t=0.62	47.10	8.52	t=0.17
	No	25.09	18.27		47.75	7.70		46.90	9.23	
Education	Elementary	31.10	20.40	F=2.09	46.24	7.47	F=3.15*	44.39	8.24	F=1.41
	Middle	26.77	15.53		47.03	6.20		47.20	8.57	
	High	24.70	17.32		48.45	7.54		47.29	9.04	
	Above College	20.51	14.09		51.36	6.18		49.08	9.04	
Religion	Yes	27.45	17.27	t=2.54*	48.04	7.19	t=0.03	47.38	8.93	t=0.91
	No	21.54	16.09		48.01	6.94		46.28	8.67	
Family Type	Nuclear	35.03	26.47	t=2.52*	48.95	9.76	t=0.59	46.53	10.27	t=-0.27
	Extended	24.86	15.91		48.00	6.85		47.09	8.72	
Family Income (million won)	Below100	26.90	18.89	F=0.27	48.17	8.91	F=0.25	43.79	10.40	F=2.37
	100-200	25.94	17.09		47.85	6.57		46.91	8.53	
	200-300	25.53	17.66		48.79	7.36		48.19	8.58	
	Above300	22.19	11.10		48.16	6.99		50.20	8.24	

** p<0.01

적 특성은 없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2001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울산 광역시를 주 중심도시로 하여 포항, 경주지역과 인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에 적절한 263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여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설계되었다.

연구도구로는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FACES III, 사회적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인관계 지지척도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win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대도시의 거주자가 125명으로 47.5%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40~49세가 146명으로 55.5%로 가장 많았고 직업이 있는 경우가 141명으로 53.6%로 많았으며,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127명으로 48.3%로 가장 많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182명으로 69.2%였으며 가족의 형태는 대가족이 242명으로 92.0%였으며, 가족의 수입은 100~200만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가 139명으로 52.9%로서 많았다.

2. 대상자의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의 결과를 알아본 결과 전체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평균점은 25.8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 점수는 Stressors index(스트레스원 지수)가 11.5, Strains Index(긴장형 스트레스 지수)는 11.3, Distress index(안정성 위협지수)는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은 4점 척도로 측정해 본 결과 평균 47.2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족결속력(family cohesiveness)은 26.8이며 가족적응력(family adaptability)의 2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평균점은 4점 척도에서 43.4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와 가족 생활사건스트레스 및 가족기능과의 상관관계

1)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의 상관성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가족기능과의 상관성은 $r=-0.18$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가 작았다.

2)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관성

대상자들이 받는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을 알아 본 결과 $r=-0.2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교적 높은 역상관을 나타내었으므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가족의 생활 사건스트레스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상관성

대상자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기능과의 상관성을 알아 본 결과 $r=0.4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교적 높은 순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가족의 기능은 향상된다고 본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의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기능과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은 없었다. 가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F=2.94, p=0.034$) 종교($t=2.54, p=0.012$), 가족형태($t=2.52, p=0.012$)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기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은 학력($F=3.15, p=0.026$)이었다.

Reference

- Cassel, J. (1976). The contribution of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A J Epidemiology*, 104, 107.
- Chung, K. S. (1990). *A study on stress family functioning on the mother with handicapped child*.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Chung, Y. S. (1990).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amily function. *J Korean Acad*

- Nurs.*, 20(1), 5-15.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Dean, A., & Lin, N. (1977). The stress 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problems and prospects for systematic investigation. *J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5(6), 403-417.
- Kim N. Y. (198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the health status of the family member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Y. H., & Park, H. S. (1992). Stressful life events and somatic symptom of urban woman. *J Korean Acad Nurs.*, 22(4), 569-588.
- Kong, S. J. (1990). *A study on the degree of family functioning in the mentally ill adolescence's familie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 Lee B. Y. (1987). *Behavio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ee K. H. (1992). A structural model adaptation and family stress in families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J Korean Acad Nurs.*, 22(4), 476-490.
- Lee K. H. (1993).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in families with mentally handicapp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McCubbin, H., Patterson, J., & Wilson, L. (1979).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FILE)*. University of Minnesota.
- Norbeck, J. S., Lindsey, A. M., & Carrier, V. L. (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30(5), 264-269.
- Oh, K. S., & Han, J. S. (1990). Stressful life events, health symptoms,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early adolescents. *J Korean Acad of Nurs.*, 20(3), 414-429.
- Olson, D. H., Porter, J., & Lavee, Y. (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 Olson, D. H., McCubbin, H. I., Nares, H., & Larsen, 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ark, J. S. (1988). *A study on the family function and supporting in the family with a mentally-retard child*.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K. E. (1993).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coping methods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Kwang-ju.
- Suh, Y. O. (1987).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ress in the pregnant women. *J Korean Acad Nurs.*, 17(2), 153-161.
- Suh, Y. O. (1995). *Structural model of health - promoting lifestyle in midlif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eoul.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4-159.

- Abstract -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Family Life Events Stress,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of the Wives who Reside in Some Area

*Kwon, Su Ja**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mily life events stress and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of wives, an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among these variables.

Method: The subjects were 263 wives who participated voluntarily in the questionnaire.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comprised family life events stress,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instrument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10 to Sep. 29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 analyzed the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t-test and ANOVA with SPSS win.

Results: 1) The mean score of family life events stress was 25.8, family functioning was 47.2, and social support was 43.4(4 point scale), 2) The rate of correlation between family life events stress and family functioning was ($r=-.18$), that between family life events stress and social support was ($r=-.26$), and that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was ($r=0.46$). 3) The mean score of family life events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was significant in age, religion and family type. The mean score of family function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was significant in education. The mean score of social support by general characteristics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 Considering the results above, we can recognize that there are close relations among family life events stress,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Although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omewhat different, these three variables are very significant for wives.

Key words : Family life events stress, Family functioning, Social support

*Dept. of Nursing, Sorabol College